"올해 볍씨, 충분히 싹 틔운 뒤 파종해야"

국립종자원, 일부 품종 발아 지연… 최아율 80% 이상 확인 후 모판 파종 권고

국립종자원이 올해 벼 파종기를 앞두고 볍씨 발아 특성이 예년과 달라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립종자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올해 파종용 볍씨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급종의 발아율은 85%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급종과 농업인이 직접 채종한 종자에서는 발아 속도가 예년보다 1~2일가량 늦어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발아 지연이 나타난 품종은 알찬미와 해들, 동진찰, 해담쌀, 새청무, 영호진미, 고시히카리, 수찬미, 추청 등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벼 등숙기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등숙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높았고, 후기에는 3.3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강우 일수도 평년보다 늘어나 종자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종자는 물에 담근 지 3일이 지나도 싹트는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돼 파종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립종자원은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파종 전 볍씨의 싹트는 상태를 확인해 최아율 80% 이상을 확보한 뒤 모판에 파종해야 한다. 자가 채종 종자의 경우 파종 2~3일 전에 일부를 미리 침종해 발아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발아율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발아가 더딘 종자는 최아 기간을 1~2일 추가로 연장해 충분히 싹을 틔운 뒤 파종하는 것만으로도 발아 불량과 입모 불균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종자만 선별하고 종자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파종 시기 저온이 예상될 경우에는 무리한 조기 파종을 피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품벼 등 일부 정부 보급종은 잔량이 남아 있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 채종 종자의 발아율이 낮거나 종자가 더 필요한 농업인은 국립종자원 보급종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올해 안정적인 육묘의 핵심은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히 싹을 틔운 뒤 파종하는 것만으로도 발아 불량과 입모 불균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적측량신청포털' 개편… 국민 편의성 높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 · 모바일 신청 가능… 쉬운 용어로 접근성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지적측량신청포털'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잡한 전문 용어와 절차를 개선해 일반 국민도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전문 용어와 복잡한 신청 방식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만 건의 지적측량 신청 가운데 70~80%가 온라인이 아닌 시·군·구청 방문이나 전화 접수 방식으로 이뤄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 지식이 없어도 측량 대상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 편익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어명소 사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지적측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인공지능으로 여는 치유농업 미래

농촌진흥청, 9일 부산서 학술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치유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산업화, 창업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9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치유 산업화와 창업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학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유 효과 검증 사례와 산업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치유농업 현황과 AI 기반 산업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지원 연구사가 '치유농업 정책과 인공지능 활용 치유산업 동향'을, 건국대학교 박신애 교수가 '인공지능 활용 치유농업 효과 검증 연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박병홍 이사장이 농업·농촌 기반 웰니스 관광 산업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AI 활용 치유 분야 창업 모델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경상국립대학교 신용욱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치유산업과 창업 전략을 설명하고, 꿈드림영농조합과 치유농장 운영 사례를 통해 농촌융복합 산업과 치유 관광 적용 사례도 함께 공유된다.

3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안성광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치유농업과 AI 융합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치유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산업화, 창업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은 치유농업 활동 모습.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경영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인이 세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를 그림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까지 폭넓게 담았다.

책자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율 적용, 가업승계 농업인 대상 상속세 공제, 농지·축사·온실 취득세 감면 등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경우에도 작물재배업을 추가 등록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용 파이프와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함께 담았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자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경영 위기나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상황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농업과학원, '현장기술수요조사' 상시 접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기술수요조사'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와 기술 보급 수요를 상시로 접수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 현장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기술에 대해 언제든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 접속한 뒤 '현장기술수요' 배너를 클릭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조사서 작성이 어려운 제안자를 위해 작성 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조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기술수요는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수요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현장실증과제, 전문가 및 현장 상담, 관련 기관 이관 등으로 분류된다. 이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술닥터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TP는 관련 기업지원사업과 애로해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현장중심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기술닥터'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1대 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제조 기반 중소기업이며, 총 2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품질 향상 등 기술 분야는 물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수출 및 판로 개척,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야에 따라 최대 160만 원 이내로 제공되며, 기업 부담금 없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접수는 5월 4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